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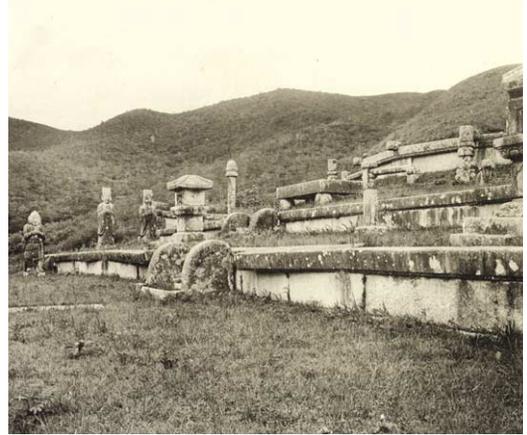


사진 3

석등[石燈] - 고려시대 사각석등 ⑤-3



사진 1

고려시대 사각석등은 고려 말부터 무덤 앞에 세우는 장명등(長明燈)으로도 나타난다. 불교 사원, 즉 불전 앞에 보이던 석등이 점차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이 넓어진 것이다. 물론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까지 승려의 묘소인 부도(浮屠) 앞에 석등이 나타나는 예가 있지만, 불교 사원을 벗어나 왕실의 무덤에까지 나타난 예는 고려 말부터이다. 이후 왕조가 바뀐 조선에 이르면 왕릉은 물론 귀인이나 일반 사대부들의 묘소에까지 석등을 세우는 일이 일반화된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장명등의 예로는 공민왕릉 석등과 고려 왕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개성 만수산 기슭의 일곱 기(基) 무덤(북한에서는 이를 '7능떼'라고 함) 앞의 석등,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현릉(顯陵)의 석등 따위를 꼽을 수 있다. 공민왕릉 석등과 7능떼 석등은 같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릉의 경우는 다르다. 현릉은 고려 왕릉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이르니까 당연히 공민왕릉이나 다른 왕릉보다 앞서겠지만, 능 앞의 석등만큼은 한참 뒤지는 것으로 보여 조선후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943년 고려 태조가 죽자 그 해에 현릉을 쌓게 되는데, 처음 만들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에 변란이 있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태조의 재궁(梓宮:임금·왕대비·왕비·왕세자들의 유해(遺骸)를 모시던 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복장(復葬)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1010년과 1018년

사진1 공민왕릉 석등// 고려 말기// 전체높이 262cm// 개성직할시 개풍군 해성리// 홍선 지음, 《석등》한국불교문화의 이해 1(놀와, 2011), 392쪽.

사진2 일제강점기 때의 공민왕릉 석등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7(조선총독부장판, 1920)

사진3 일제강점기 때의 공민왕릉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7(조선총독부장판, 1920)



사진 4



사진 5

거란의 2차, 3차 침입 때는 북한산 향림사(香林寺)로 옮겼다가 다시 현릉에 안치하였고, 1232년 몽고군의 침략 때는 강화도로 이장하였다가 44년 만에 또다시 현릉에 묻은 바 있다. 그때마다 왕릉은 크고 작은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석등 또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석등은 후대에 보수할 당시의 양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릉은 왕비 노국공주의 무덤인 정릉(正陵)과 공민왕 본인의 무덤 현릉(玄陵)을 합쳐 일반적으로 공민왕릉이라고 부른다. 이 능은 우리나라 능제(陵制)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석등제(石燈制)의 변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석등 2기가 있는데, 공민왕 무덤인 현릉 앞 석등을 살펴보면 높이 262cm에 지대석부터 지붕돌까지 모두 사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사석의 경우 하나의 돌을 ‘ㄷ’자 형으로 다듬어 엮어놓은 것 같으며, 터널처럼 앞뒤로만 뚫린 화창(火窓)은 양쪽 벽과 천장은 있지만 바닥은 없어서 아래쪽 상대석의 윗면이 바닥 구실을 한다. 간주석의 경우 폭보다 높이가 한결 작은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금까지 본 고려시대 다른 사각 석등과 견주어 간주석의 높이가 매우 낮고 폭은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에는 면마다 커다란 여의두(如意頭) 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는 세 개의 동그란 구슬무늬를 중심으로 파상무늬를 빼곡하게 새겨 넣었다. 세 개의 구슬무늬 가운데 윗부분의 구슬무늬에는 태극무늬를 새겨 넣어 상서로운 의미를 지니도록 하였다.

석등 지대석은 거의 땅 속에 묻혀 있으며, 그 위에 놓인 하대석은 이중의 기대 부분과 연화하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것도 새롭고, 하단 기대석 사방을 돌아가며 대칭되게 덩굴무늬를 새긴 것 또한 눈길을 끈다. 연화하대석에는 면마다 세 장, 모서리마다 한 장씩 모두 열여섯 장의 연꽃잎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하나의 꽃잎 속에는 다시 세 개의 고사리순을 말린 듯한 꽃무늬가 곱게 장식되어 있다. 연화하대석의 이러한 모습은 상대석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고사리순 모양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고려시대 고사리말림형 등경(燈檠)을 새롭게 떠올리게 한다. KEA

사진 및 자료 / 홍선 지음, 《석등》(놀와, 2011)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4(조선총독부장판, 1916)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4 개성 만수산 7층에 가운데 제3능의 석등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7(조선총독부장판, 1920)

사진5 고려 태조 왕건 현릉 앞 석등 조선총독부, 《조선고적도보》7(조선총독부장판, 1920)